

“

항상 기도하는 여인 성녀 로사 필리핀 뒤센

(축일: 11월 18일)

”

글 서희정 마리아 | 그림 홍미현 세레나



어느 날, ‘바람’처럼 편지 한 장이 도착했다. 미국에 있는 루이지애나 뒤브르 주교가 프랑스에 있는 성심 수녀원에 보낸 편지였다. 편지를 받은 뒤센 수녀는 틔씩! 무릎을 꿇었다. 터져 나오는 함성을 손으로 막았다. 하지만, 손가락 사이로 새어 나오는 감사는 어찌지 못했다.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세 번째 ‘감사합니다’란 말은 수녀의 볼에 기쁨으로 흘렀다.

“아직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하느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 주소서.”

어린 시절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올린 기도였다. 10년... 20년... 30년... 선교를 나가기에는 이제 늦지 않았을까 싶은 나이에 뒤센 수녀는 기도를 멈추는 법이 없었다. 마치 하느님께 확답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뒤센 수녀 말고는 그 누구도 이 기도가 이루어지리라 믿는 사람은 없었다. 그저 위로 차원에서 ‘하느님께서 듣고 계실 거예요.’, ‘꼭 기도가 이루어질 거예요.’ 류(類)의 말을 건넸을 뿐이었다.

그러나

기도는 정말, 이루어졌다.

그렇게 신 살의 뒤센 수녀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으로 떠났다. 6개월에 걸친 긴 여정이었다. 변덕 심한 바다 탓에 목숨이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뒤센 수녀는 그

때마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했다. 두 손을 모으는 일 - 기도는 이루어졌다.

미국 땅에 도착해서는 하느님께서 시작하신 자신의 기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했다. 뒤센 수녀의 미국 생활을 보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이러려고 그 오랜 세월, 하느님께 기도했나? 정말 이런 삶을 원했다고?”

그만큼 미국에서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식량이 부족해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 온갖 전염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뒤센 수녀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했다. 두 손을 모으는 일 - 기도는 이루어졌다.

20여 년이 지난 후에도 뒤센 수녀는 멈추지 않았다. 인디언 원주민에게도 하느님을 전하고자 했다. 수녀의 나이, 일흔이었다. 언어가 달라,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뒤센 수녀가 원주민에게 하느님을 전하는 방법은 확실하고도 강력했다. 역시 그녀가 가장 잘하는 일, 두 손을 모으는 일을 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기도는 이루어졌다.

*덧: 인디언 원주민들은 성녀 로사 필리핀 뒤센을 ‘항상 기도하는 여인’이라 불렀다. 선교 활동 20여 년 동안, 미국에는 6개의 성심 수녀원 분원이 생겼고 많은 이들이 하느님을 알아 믿게 되었다.